

慰靈聖月 斷想

죽음은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
(Death is very likely the single best invention of life)

지난달, 세계 패러다임의 한 부분을 변화시켰던 인물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도 잘 아시겠지만, 애플의 공동 창업주이자,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탄생시킨, IT 변혁의 주인공 스티브 잡스의 사망 소식에 세계의 언론과 네티즌들은 애도를 하였으며, 그의 생전의 여러 모습과 강연들이 인구에 회자되었습니다. 그중 2005년 스텐포드대학교의 졸업식 연설은 그의 생과 사의 성찰이 담겨 있는 명연설로 꼽힙니다.

“아무도 죽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천국으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조차 거기에 가기 위해 죽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죽음은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목적지입니다.
누구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삶을 바꾸는 중개자입니다.
죽음은 낡음을 청소하고 새로움을 위한 길을 열어 줍니다.” -S. Jobs

그가 책장암으로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온 후, 그 체험에서 우러나온 이 유명한 연설의 한 부분은 11월 위령 성월을 지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삶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존재하지만 우리는 한쪽 면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언제나 삶 속에 공존하며 언제 어느 때일지 모를 뿐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있기에 우리의 삶은 더욱 소중해지는 것입니다. 만약 죽음이 없다면 인간은 과연 인생살이를 것처럼 열심히 살려고 하겠습니까? 죽음이라는 예정되지 않은 시한 때문에 인간은 살아 있는 동안 더욱 보람되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소중할 수 있는 것은 삶의 반대인 죽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부활)을 의미하기에, 그리고 그 새로운 시작은 지금 지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에 의해 정되기에, 현세의 삶이 더 큰 의미를 갖고 더욱 소중해진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께서는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내가 여러분에게 신비 하나를 말해 주겠습니다. 우리 모두 죽지 않고 다 변화할 것입니다.
순식간에, 눈 깜할 사이에, 마지막 나팔 소리에 그리될 것입니다.
나팔이 울리면 죽은 이들이 썩지 않는 몸으로 되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이 썩는 몸은 썩지 않는 것을 입고 이 죽는 몸은 죽지 않는 것을 입어야 합니다.
이 썩는 몸이 썩지 않는 것을 입고 이 죽는 몸이 죽지 않는 것을 입으면,

그때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승리가 죽음을 삼켜 버렸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이며 죄의 힘은 율법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언제나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음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1코린 15, 51-58)

스티브 잡스는 앞서 말한 연설에서 자신이 17세 때 읽은 “매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의인이 되어 있을 것이다.”라는 경구에 감명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33년간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되물었다고 합니다. “오늘이 내 인생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할 것인가?”

우리가 죽음을 인지한다는 것은 바로 오늘 하루에 충실할 수 있는 방법이며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삶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위령 성월은 먼저 세상을 떠나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나도 이 현세의 삶을 끝마치고 죽음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가게 됨을 묵상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묵상하는 것은 상실의 아픔을 곱씹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로 나아가기 위한 또 다른 준비입니다.

세상의 패러다임을 바꾸었다 한들 유한한 삶은 어쩔 수 없음을 통찰한 스티브 잡스의 연설 중 한 부분을 묵상하며 위령 성월의 짧은 생각을 마칩니다.

“내가 곧 죽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내가 내 삶에서 큰 선택들을 하는 데 도움을 준 가장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외부의 기대들, 모든 자부심, 모든 곤경과 실패의 두려움,
그런 거의 모든 것들은 죽음 앞에서는 떨어져 나가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만 남기 때문입니다.” -S. Jobs

주님, 믿는 이들에게는 죽음이 죽음이 아니요 새로운 삶으로 옮겨감이니 세상에서 것들이던 이 집이 허물어지면 하늘에 영원한 거처가 마련되나이다(위령 미사 감사송 중). 🙏

본지 편집인 